

‘늠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은 말티즈 순둥이



하재영
팅커벨 입양센터 공보팀장, 작가

연수 씨(팅커벨 프로젝트 회원, 가명)에게 안겨 입양센터에 왔던 날, 말티즈 순둥이는 무척 불안해 보였습니다. 입양센터에 입소한 첫날 강아지들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연두와 들비처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비교적 활발한 편이에요. 개고기가 될 뻔한 위기에서 구출된 방울이는 몇 날 며칠 겁에 질려 있기도 했고요. 또 길거리에서 웬 아저씨에게 발길질을 당하다 구조된 학둥이는 친절할 사람들이 있는 입양센터에 오자 안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연수 씨는 팅커벨 프로젝트의 오랜 회원으로 입양센터에 자주 봉사를 오시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연수 씨가 데려온 순둥이는 정식으로 구조 요청된 적도 없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언급된 적 없는 낯선 강아지라, 저는 연수 씨에게 그 강아지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순둥이 사연이 좀 길고 기구해서요.”

연수 씨는 입양센터가 생기기 전, 팅커벨 연계병원에 있는 강아지들에게 산책과 놀이 봉사를 해주곤 했어요. 오프라인 센터가 없던 시절엔 구조한 강아지들이 주로 가정집에서 임시보호를 받았는데, 임시보호가 없거나 치료가 필요한 강아지들은 병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연수 씨는 하루 종일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어야 하는 강아지들이 안쓰러워 자발적으로 산책과 놀이 봉사를 하셨던 거예요.

연계병원에 자주 드나들면서 연수 씨는 팅커벨 강아지들뿐

아니라 입원실에서 장기간 지내고 있는 다른 강아지들도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연수 씨가 팅커벨 강아지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마다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다른 케이지의 강아지들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다른 유기견 구호단체에서 구조한 강아지들이었어요. 연수 씨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놀아줄 수 없어서 미안했지만, 좋은 분들에게 보살핌을 받다가 행복한 가정으로 입양되기를 빌어주곤 했어요.

하지만 입원실에서도 가장 구석진 케이지에 있던 순둥이는 주인도, 소속된 단체도 없었어요. 동물병원 원장님께 여쭙본 순둥이의 사연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순둥이의 주인은 열살이 넘는 순둥이를 안락사 시켜달라며 병원에 데리고 왔다고 해요. 나이가 많을 뿐 질병이 있

는 아이도 아니었어요. 순둥이의 옛 주인은 늙은 순둥이가 짐스러웠던 걸까요. 어릴 때처럼 귀엽지 않으니까 사랑 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혼자 남겨진 순둥이를 위해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는 입원실에서 지내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죽음만은 면했지만 그날부터 순둥이는 햇살 한 번, 바람 한 번 맞지 못한 채 케이지 안에서 반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둥이의 사연을 알고 난 뒤 연수 씨는 팅커벨 강아지들뿐 아니라 순둥이도 산책을 시켜주었어요. 하지만 산책 봉사만으로 순둥이의 삶이 바뀔 수는 없었지요. 팅커벨에 구조 요청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연수 씨는 길 위에서 만난 골드릿



입양센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순둥이.
순둥이는 늘 저 자리에 웅크려 있지만 했어요.

리버의 구조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구조한 강아지가 입양 가기 전까지 중복 구조 요청을 불허한다’는 톱커벨 회칙에 따라 일시적으로 구조 요청이 불가한 상태였어요. 그 분은 순둥이를 케이지에서 꺼내주기 위해 용기를 내어 톱커벨 대표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순둥이에게 입양센터 자리 한 칸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어렵사리 입양센터에 입소하긴 했지만 순둥이는 그림자처럼 생활했어요. 나이가 많고 소극적인 순둥이는 다른 강아지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잔뜩 기가 죽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치일 때도 있었지요. 관리 상태와 성향으로 추측하건대, 순둥이는 버림받고 안락사의 위기에 처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식사시간이 되어 다른 강아지들이 신나게 밥을 먹을 때에도 순둥이는 눈치를 보다 가장 늦게 밥을 먹곤 했어요. 직원이나 봉사자들이 오면 쓰다듬어달라고 앞 다투어 뛰어오는 다른 강아지들과 달리, 순둥이는 자기 자리에 오도카니 웅크려 있기만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순둥이가 있는 2번방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다른 강아지들보다 순둥이를 먼저 챙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가올 용기가 없는 순둥이에게 누군가가 너를 최고의 강아지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입양캠페인 행사 모습.
맨 앞 왼쪽이 순둥이 홍보엽서.

2015년 가을, 톱커벨 프로젝트에서는 순둥이를 포함해 오랫동안 입양을 못 가고 있던 아이들을 위해 홍보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하나의 홍보물에 여러 아이들의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에 맞춰 사진과 글을 따로 제작하는 형식이다 보니, 저를 비롯해 몇몇 봉사자들이 며칠 밤을 새워야 할 만큼 작업 분량이 엄청났답니다. 그렇게 수십 장의 홍보물을 가지고 오프라인 입양행사를 진행한 결과, 순둥이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입양센터의 여러 강아지들 중에서도 순둥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진 여중생이 나타난 거였지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 학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유기견에 대한 애정과 연민도 남달랐어요. 그 학생은 입양센터에 봉사를 다니면서 항상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있는 순둥이를 각별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설득해 순둥이를 임시보호하기로 했지요. 순둥이가 임시보호를 가던 날, 입양센터 사람들은 순둥이가 학생의 가족들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그래서 이 임시보호가 입양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임시보호 기간이 끝난 뒤, 순둥이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 학생의 가족들에게 평생의 반려견이 되었어요.



입양 후 센터에 놀러온 순둥이는 몰라보게 예뻐져 있었답니다.

어린 나이에 유기되고 구조된 아이들에게 차라리 제2의 삶을 향한 더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면, 순둥이처럼 나이 들어 버려진 강아지들에게는 그 기회마저 희미한지 모릅니다. 연민과 측은지심을 가지고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분들도 더 어린 강아지, 더 예쁜 강아지, 더 작은 강아지에게 눈길을 주기 마련이지요. 어찌면 어리고 예쁘고 작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입양센터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웅크려 있는 순둥이를 볼 때마다 저는 순둥이에게도 생애 한 번쯤 행복했던 기억이, 넘치도록 사랑받았던 기억이 생기기를 바랐습니다. 열 살이 넘었지만 아직 순둥이에게는 살아갈 많은 날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순둥이는 그날들을 가족과 보내고 싶어 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어리고 예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라면, 사랑받지 못한 생명에게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은 것도 저의 우리의 선한 본능이라고 믿어요. 가장 사랑이 필요한 존재는 사랑받고 있지 못하는 생명일 테니까요. 순둥이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늙었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저 수많은 강아지들,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조차 희박한 제2의 순둥이들에게 더 크고 깊은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